

4·5 선발 경쟁,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플로리다 TIGERS
캠프를 가다
김여울 기자

양현종·가농·브룩스 3선발 완성
김기훈·임기영·홍건희·홍상삼 등
남은 2자리 놓고 무한경쟁

서재응 코치 “컨트롤·안정감 평가
국내 시범경기 끝나야 레이스 종료
필승조는 올해도 박-하-전-문
강한 불펜 만들기가 중점 목표”

KIA 타이거즈의 선발 경쟁은 ‘끝까지 간다’.
KIA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2020시즌 퍼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퍼즐은 4·5선발이다.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새로운 외국인 선수 드류 가농과 애런 브룩스가 선발 세 자리를 책임지고, 남은 두 자리를 놓고 투수들이 경쟁하고 있다.

지난 20일 연습경기가 시작되면서 KIA의 선발 경쟁에 속도가 붙었다.

서재응 투수 코치가 지켜보는 선발 후보군은 7명이다.

지난 시즌 선발로 역할을 한 좌완 김기훈, 우완 차명진, 이민우, 홍건희 그리고 사이드암 임기영이 올 시즌에도 선발 경쟁 중이다. 그리고 ‘신입 호랑이’ 홍상삼과 김현수도 선발 후보군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다.

서 코치는 ‘컨트롤’과 ‘안정감’을 우선으로 승자를 가리겠다는 생각이다.

서 코치는 “선발 투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컨트롤이다. 예외인 선수도 있다. 성향과 메커니즘이 가지는 컨트롤이 다르기 때문에 홍상삼, 김기훈 같은 투수에게는 빠른 볼과 볼 끝으로 던지게끔 유도한다. 다른 선수들은 컨트롤을 위주로 보고 뽑으려 한다”며 “게임에서 제일 잘 던지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연습경기부터 시범경기까지 갈 텐데 안정적인 투수, 전체적인 평가가 좋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팀에서 키워야 하는 선수, 투자를 했을 때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수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KIA는 논스톱 연습경기를 하며 매일 투수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와 두 차례 연습경기에 이어 시범경기 10경기를 통해 선발 경쟁의 레이스를 종료하게 된다.

선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서재응 코치는 캠프

전부터 경쟁 구도를 형성해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했다.

서 코치는 “A와 B조를 짤 때 경쟁해야 할 선수들을 묶어놨다. 선발 후보들을 두 명씩 붙여놨기 때문에 선수들은 캠프 오기 전부터 경쟁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의 시선이 4·5선발에 쏠렸고, 치열한 선발 경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서 코치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불펜’이다. 강력한 중간 투수가 팀 마운드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코치는 “많은 분이 우리 팀에 필요한 게 4·5선발이라고 물어보시는데 생각이 다르다. 더 강력한 중간 투수들을 만들고 싶다.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젊은 투수들이 꾸준히 거주면 고맙고, 미래 타이거즈의 강한 불펜을 만들 수 있지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루틴 등 자리를 잡으려면 2~3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선수들이 부상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중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이 선수들이 잘했다고 해서 잘 될 거로 생각하면서 선발을 찾게 되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처할 자원에서도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선발과 불펜 한쪽은 확실하게 메우고 가자는 생각으로 추격조를 바로 필승조로 투입할 수 있게 중간에 중점을 두고 캠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펜은 지난해와 같은 틀로 운영된다. 필승조 ‘박하전문’이 그대로 올 시즌 KIA 승리를 지킨다.

서 코치는 “고영창을 시작으로 하준영-박준표-전상현-문경찬으로 시즌 초반부터 필승조로 간다. (선발 이야기가 나왔던) 박준표는 올 시즌 중간에서 확실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전상현한테 8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고 말했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서재응 코치(오른쪽)이 투수 김연수를 지도하고 있다.

아기호랑이들 ‘실수는 성장의 어머니’

수비에 자신 있던 김규성, 연습경기 잇단 실수에 윌리엄스 감독 개인지도
홍중표, 공·수 교대 타임에 타석 대기 큰 웃음...시행착오 속 자신감 ‘쑥쑥’

KIA 타이거즈의 신예 선수들의 ‘자신감 업’ 캠프를 치르고 있다.

KIA의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는 신예 선수들에게는 기회 시간이다.

윌리엄스 감독이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KIA는 대규모 선수단을 꾸렸고, 윌리엄스 감독은 ‘논스톱 연습경기’에 신예 선수들을 연달아 투입하며 전력을 살피고 있다.

야수진에서는 ‘고졸 루키’ 홍중표(20), 박민(19)과 함께 ‘예비역’ 김규성(23)이 미래 자원으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와 경험을 쌓고 있다.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실수도 하고 있지만 윌리엄스 감독과 선배들은 팀 미래를 위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김규성은 윌리엄스 감독의 ‘특별 과외’를 받았다.

“수비가 가장 자신있다”고 언급했던 김규성이지만, A·B조로 나눠 두 경기를 치렀던 지난 20일 유격수로 나서 주간 경기에 이어 야간 경기에서도 실책을 기록했다.

시작부터 스텝이 꼬인 김규성을 위해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나섰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규성을 따로 불러 평고를 받게 했고, 직접 2루에서 공을 받아주며 자신감을 키워줬다.

윌리엄스 감독은 “편하게 하기를 바랐다.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처음 보다는 더 많이 경기에 뛰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배 박찬호는 농담으로 김규성의 긴장감을 풀어줬다.

“플로리다 에러왕”이라며 김규성을 놀린 박찬호

는 “나는 작년 오키나와 에러왕”이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김규성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과 수비 연습을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다. 김민우 코치님도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하라고 말씀해주셔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여유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열정이 넘친 홍중표의 실수는 선배들을 웃게 했다. 지난 23일 연습 경기 도중 KIA 덕아웃에 큰 웃음이 터졌다. 공수교대 시간, 상대 투수가 교체되면서 연습투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다음 타자인 홍중표가 방망이를 들고 이미 타석에 가 있었던 탓이다.

윌리엄스 감독과 위드마이어 수석 코치가 웃음을 터트리면서 홍중표를 덕아웃으로 불러들였고, 주먹 인사를 통해 막내의 열정을 응원했다.

홍중표는 “열정이 너무 가득했다. 빨리 치고 싶었다”며 자신의 실수에 관해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과 선배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 KIA의 미래들이 성장하고 있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규성(오른쪽)이 윌리엄스 감독의 지도 아래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마요르카 10번...강등 위기 팀 구원 중책

6월까지 라리가 시즌 잔여경기 소화...이강인과 맞대결은 없어

국가대표 ‘캡틴’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31·사진)의 새 동지가 스페인 프로축구 1부리그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클럽 RCD 마요르카로 결정됐다.

마요르카 구단은 25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성용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로, 기성용은 마요르카에서 2019-2020시즌 잔여 일정을 치르게 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과 지난달 말 결별한 기성용은 K리그 복귀를 염두에 두고 FC서울, 전북 현대와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려 새 팀을 모색해왔다.

2006년 FC 서울에서 프로 데뷔한 기성용은 2009년 스코틀랜드 셀틱에 입단하며 유럽에 진출했다. 2012년부터는 프리미어리그의 스완지시티에서 뛰었고, 2013~2014시즌에는 선덜랜드로 임대

됐다. 2018년 6월 입단한 뉴캐슬에서는 지난달까지 뛰었다.

그가 라리가에 데뷔하면 이천수(레알 소시에다드·누만시아), 이호진(라싱 산탄데르), 박주영(셀타 비고), 김영규(알메리아), 이강인(발렌시아), 백승호(지로나)에 이어 7번째 한국인 선수가 된다.

일본의 19세 기대주 구보 다케후사 등이 뛰는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라리가 25경기를 치른 현재 승점 22로 20개 팀 중 18위에 머물러 있다.

하위 3개 팀이 다음 시즌 2부리그로 강등되는 만큼 강등권 탈출이 급선무다. 마요르카는 다음 달 2일 헤타페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으나 기성용이 이 경기를 통해 스페인 무대에 데뷔할지는 불투명하다.

이강인이 뛰는 발렌시아와는 이미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붙어 잔여 일정에 맞대결이 없다. /연합뉴스



뮌헨, 첼시 원정 화력쇼

챔스리그 16강 1차전 3-0 승리...8강 진출 유리

독일 프로축구 최강 바이에른 뮌헨이 첼시(잉글랜드)를 완파하고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문턱에 섰다.

뮌헨은 26일 영국 런던의 스템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대회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의 특급 활약을 앞세워 첼시에 3-0으로 이겼다.

내달 19일 홈 2차전을 남겨둔 뮌헨은 8강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레반도프스키와 이번 대회에서 잉글랜드 팀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브리가 뮌헨에 승리를 안겼다.

나브리는 전반 6분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와 2-1 패스에 어은 골지역 정면에서의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3분 뒤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왼쪽에서 찰리온 침투 패스를 나브리가 골지역 왼쪽에서 왼발 땅볼 슈팅으로 연결해 2-0을 만들었다.

나브리는 이번 대회에서 넣은 6골 전부를 토트넘과 첼시, 잉글랜드 팀들을 상대로 기록했다. 레반도프스키는 직접 쐐기골까지 해결했다. 후반 31분 알폰소 데이비스의 왼쪽 돌파에 어은 크로스에 문전으로 쇄도하던 레반도프스키가 발을 갖다 대 뮌헨의 승리를 매조했다.

대회 11번째 골을 넣은 레반도프스키는 10골을 기록 중인 신예 엘링 홀란드(도르트문트)를 제치고 득점 선두로 뛰어올랐다.

바르셀로나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파울로에서 열린 나폴리와 16강 원정 1차전에서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동점골로 1-1로 비겼다. /연합뉴스